

성평등 실천 문화조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방송발전기금 지원

수행과제명 :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Ⅰ): 사적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안상수 연구위원

Tel: 02-3156-7188, e-mail: ahnss@kwidimail.re.kr

요 약

사적 생활영역인 가정에서 성평등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의 동등한 가사참여에 대한 사회적 규범 제시와 그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가 시급함. 이를 위한 미디어 부문에서의 정책적 개입의 한 방안으로 생활 속 성평등 실천의 모델을 제시하거나 성평등 실천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 할 수 있음. 성평등의식 형성과 실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또한 가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사적 영역이어서 정책적 개입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함. 가정에서의 성별 역할 수행 역시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 그러나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가정에서의 성평등의식과 실천을 중재하는 것이 주관적 규범, 즉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임. 주관적 규범은 가족들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친구, 동료의 의견, 나아가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들

일 수 있음. 특히 미디어가 성평등의식과 성평등 실천에서의 사회적 규범 제시와 가치부여 기능은 오래 전부터 주목되어 왔음

□ 북경 유엔세계여성회의(1995) 및 48차 여성지위위원회(2004)에서는 TV 등의 미디어에서의 이와 같은 영향력을 고려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 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의 성차별 개선과 성 평등한 미디어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3차례에 걸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중요한 의제로 채택된 바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28조 1항(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을 통하여 남녀 평등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양성평등)에서 방송이 특정성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을 옹호, 합리화,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여성부에서는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매년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 속에서의 성차별적 묘사나 성차별적 언어표현, 성차별적 이미지, 프로그램 등장인물 및 구성에서의 성별 간 불균형 등에 관한 다양한 성차별 사례를 모니터링해 오고 있고 아울러 여성부에서는 성평등을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녀평등방송상을 제정하여 11년째 시상해 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여성부에 한정되어 있고, 미디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과는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그 정책적 영향력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음

□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규범제시와 성평등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거나 시상을 하는 제도를 넘어서 성평등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방송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은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 등에 쓰여 지고 있는 바, 방송발전기금 중 일부를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할애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평등의식 향상 및 생활 속 성평등 실천의 당위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제시와 가치부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2. 정책의 추진방향

-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의식 제고 및 생활속 성평등 실천의 모델 제시
 - 대다수 가정에서는 거의 매일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디어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의 수단으로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함. 미디어는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지만, 성평등한 남녀관계를 규정하고, 성평등 실천의 당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매체와 장르들을 통해 성평등의 보편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생활속에 성평등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미디어 환경 개선
 - 가정 등의 사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의식 제고와 성평등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 수단이 매우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은 필수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방송발전기금의 활용이 필요하며,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금지원에 관한 여성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3. 정책효과

□ 성평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

-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통한 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이 활성화됨으로써 미디어 속의 성차별적 묘사가 감소할 것이며, 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평가 방법, 미디어의 순기능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성평등의식 제고 및 성평등 실천의 당위성 부여

-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는 성평등의식 향상 및 성평등 실천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게 됨에 따라, 성평등의 사회적 규범을 제고하고 생활 속의 성평등 실천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성평등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임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활성화 및 여성정책 추진 방향의 다변화

- 그 동안 미디어의 성차별성에 관한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향후 성평등한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또한 성평등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여성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과 협력 및 연계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주관부처 :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 관계부처 : 여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